

##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의 현황 및 투르크멘(Turkmen) 종족 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CAFR(Central Asia Field Research) 5기 훈련팀 및 3기 미션팀<sup>1</sup>

<sup>1</sup> 위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CAFR(Central Asia Field Research) 5기 훈련팀과 3기 미션팀이 연합하여 2007년 7월 12일 - 2007년 7월 26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과 투르크멘 종족에 대해 현장조사한 내용이다. 조사팀은 권선형(국제어문학부 '05), 전민영(상당심리사회복지학부 '02), 윤지예(상당심리사회복지학부 '03), 김경민(국제어문학부 '06), 고은애(국제어문학부 '02), 강문수(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03), 김준식(기계제어공학부 '06), 감국화(언론정보문화학부 '06)이장 8명으로 구성되었다.

# I. 조사 설계서

## 1. 조사의 필요성

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 구 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한 신생국이며, 북쪽으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남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서쪽으로는 카스피 해(海)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1991년 독립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은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Saparmurat Niyazov) 전(前) 대통령의 독재 정권에 의해 폐쇄적인 대외정책을 고수해왔다.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3위, 석유 매장량 세계 5위를 자랑하는 자원강국이지만, 자원 판매 수입금 중 대부분이 니야조프 전 대통령 개인의 우상화를 위해 사용되었다. 지리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은 페르시아 창과 중앙아시아 창 의 교두보와 같은 위치에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현재 복음화율이 0.5%미만이고 니야조프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신격화하며 기독교를 포함한 타 종교활동을 억압하였다. 총 인구 중 85% 이상이 전통종교와 이슬람이 혼합된 특수적 형태인 샤머니즘적 민속 이슬람을 믿는다.

2006년 12월 말, 니야조프 전 대통령이 급사한 이후 당선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хам메도프(Gurbanguly Berdymukhammedov) 대통령은 비자금 관리 창구 폐쇄, 마약 유통에 대한 단속령, 개방정책 등과 같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당국 고위 행정관료들과 일반경찰, 이슬람 지도자들이 기독교 박해를 위한 협의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 기독교 박해는 의도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투르크멘 종족은 니야조프 전 대통령이 집권 기간 동안 고집했던 국가의 고립적 정책으로 인해 지금까지 기독교 복음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새 대통령의 개방정책과 함께 외국인의 출입이 이전보다 자유로워지면서 더불어 선교의 접근성도 높아지고 있다. 니야조프 전 대통령 집권 시 이슬람과 러시아 정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모임이 불법화되면서 1999년에 사역하던 선교사 대부분이 추방당하였다. 실제로 서구 선교사 전원이 추방당하였고 현지인 지도자 3명은 고문당하다가 탈출했던 일도 있었다.

이렇게 기독교를 억압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복음의 접촉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현장 리서치를 통하여 새 지도자의 개방정책을 비롯한 정치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전체적 특색과 지역별 특징 및 투르크멘 종족의 전체적 현황을 정리하고 더불어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지의 구체적 현실성이 고려된 선교전략을 도출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 2. 조사의 목적

- (1) 투르크멘 종족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제반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 (2)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선교 전략을 도출한다. 기존에 있던 일반적인 선교 전략을 포함하여 창의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제안한다.
- (3) 투르크멘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중보기도자와 현장 선교사를 동원한다.

## 3. 조사지역

- (1) 투르크메니스탄 아할(Akhal) 주 아쉬가바드(Ashgabat) 시
- (2) 투르크메니스탄 다쉬오구즈(Dashoguz) 주 켈레-우르겐츠(Kunya-Urgench) 시
- (3) 투르크메니스탄 발칸(Balkan) 주 투르크멘바쉬(Turkmenbashi) 시
- (4) 투르크메니스탄 마리(Mary) 주 바이람알리(Bayram-Ali) 시
- (5) 투르크메니스탄 레밥(Lebap) 주 투르크멘아바드(Turkmenabat) 시

## 4. 조사대상

- (1) 투르크메니스탄과 투르크멘 종족

## 5. 조사기간 : 2007년 7월 12일 ~ 2007년 7월 26일<sup>2</sup>

---

<sup>2</sup> 이 기간은 현장에서의 조사시간만을 포함하는 기간이다. 본 조사팀은 2007년 3월에 구성되어 5개월 간 10주간의 학기 중 훈련(리서치 강의, 예배, 말씀양육, 캠프 2회, 리서치실습, 선교세미나, 부서모임, 지역연구 모임 등), 10일간의 합숙훈련(강의, 예배, 사전조사, 팀워크 훈련, 역할점검 등), 2주간의 현장조사, 10일간의 보고서 합숙 과정을 통해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 6. 조사인원

### (1)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중앙아시아 현지 조사팀<sup>3</sup> 8명

	이름	학부 (학번)	역할
1	권선형	20500029	디렉터, 총무부
2	윤지예	20300383	문서자료부
3	전민영	20200493	예배부
4	김경민	20600045	디렉터, 문서자료부
5	강문수	20300002	예배부
6	고은애	20200020	예배부
7	김준식	20600161	총무부
8	김국화	20600049	미디어부

### (2) 통역자 1명

	이름	소속	역할
1	취나르(Chynar)	아할시하트 여행사	현지 가이드

## 7. 조사방법

### (1) 예비 조사

#### 1) 서적

- ① 중앙아시아 연구소 「은둔의 나라 투르크멘」 (베델 기획: 2007)
- ② 도용복 「신비한 나라 중앙아시아의 보물창고 투르크메니스탄」 (선: 2004)
- ③ 최한우 「중앙아시아연구(상)」 (퍼네가: 2003)

#### 2) 인터넷

<sup>3</sup>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의 선교 훈련 단체인 GFR(Global Field Research)에 소속된 8개 지역조사팀 중 CAFR(Central Asia Field Research) 훈련팀을 말한다. GFR 훈련 체계의 1단계인 훈련팀(Training Team)은 미전도 종족 조사에 중점을 두고 훈련되며, 다음 단계로는 주제별 현장조사에 중점을 둔 미션팀(Mission Team)과 전문가팀(Expert Team)이 있다.

① 인터넷 - [www.j2soon.com.ne.kr](http://www.j2soon.com.ne.kr)

## (2) 현장 조사

### 1) 관찰 조사

### 2) 인터뷰 조사

① 전문가 인터뷰 - J선교사, S선교사, K선교사, Y선교사 인터뷰

② 일반인 인터뷰 - 아쉬가바드의 테케 바자르 주민 외

### 3) 문헌 조사

① 투르크멘 박물관 방문 문헌조사

② 학교 방문

- Turkmenistan Power & Engineering Institute in Mary

- Transport College Institute in Turkmenbashi

③ 현지에서 마을 지도와 종족 관련 서적

## 8. 조사의 성과와 한계점

본 리서치 보고서는 투르크메니스탄과 투르크멘 종족의 고대 역사에서부터 최근 현황까지를 총망라 했다는 점과 이와 관련된 선교전략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리서치팀은 투르크메니스탄 다섯 개 주의 주요 도시를 직접 방문하여 각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각 도시의 주요 박물관 및 유적지를 방문함으로써 투르크메니스탄의 개괄적인 정보들을 획득 할 수 있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오랜 독재 정치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국가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본 조사팀의 현장 관찰 및 현지인 인터뷰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들은 실제적인 정보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보고서는 그 땅의 견고한 진들을 도해하고, 영적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투르크메니스탄과 투르크멘 선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 있어 몇 가지 한계점이 있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먼저 2주간의 짧은 일정 안에 투르크메니스탄 다섯 개 주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였기 때문에 각 지역의 개괄적 정보를 얻는데 그쳤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의 우민화 정책으로 인하여 국가 내 역사학자나 지역 전문가가 소수에 불과하고 통제가 심하여 투르크멘의 지식 계층과 인터뷰 할 기회가 적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투르크메니스탄에 거주했던 선교사님들을 직접 인터뷰함으로써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었다.

## II. 들어가는 말

투르크메니스탄은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나라 중 하나이며 70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구별되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중요한 특징은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일인 독재정치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니야조프 전 대통령은 독립 직후부터 15년이 넘도록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였고 외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폐쇄적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에 복음 전파가 거의 불가능했다. 또 니야조프 전 대통령은 ‘루흐나마’라는 저서를 남기면서 이 책을 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마호메트와 같은 선지자의 반열에 올려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6년 12월, 니야조프 전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급사하고 2007년 2월 베르디무하메도프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다. 새 지도자의 지배체제 아래 놓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점차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학자들을 비롯한 여러 선교학자들은 투르크메니스탄이 앞으로 어떤 태도와 자세로 국제 관계에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독립 후 외부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왔기 때문에 투르크멘족 대부분은 복음을 접할 수 없었다. 제 1 종교는 이슬람교로 신비주의적 경향이 강한 수니파이지만, 투르크멘 민족은 타 중앙 아시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 이슬람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하는데 그 중 하나는 알라를 유일신으로 섬기는 근본주의 회교 성장을 억압하기 위한 니야조프 정권의 정책, 다른 하나는 전통 종교의 특색과 이슬람의 세계관이 공존하는 민속 이슬람적 특징 때문이다. 물론 투르크멘족은 스스로 무슬림이라고 자처하지만 이들 중 대다수는 생활하면서 이슬람 율법을 지키는데 큰 비중을 두지 않으며 오히려 민속적 전통에 따르며 살아간다.

이에 본 리서치팀은 이러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여러 특색을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와 지역별 특징 및 투르크멘 종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현장 조사 하였다. 본 리서치 보고서는 현지 조사를 통하여 얻은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선교전략을 제언할 것이다.

### III. 투르크메니스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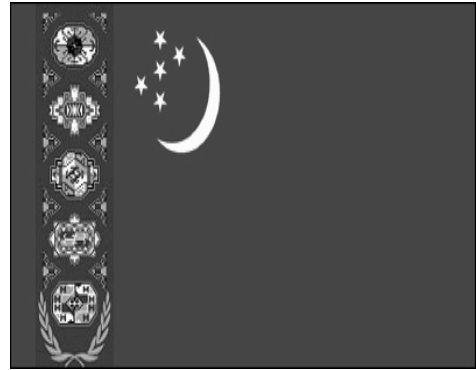
#### 1. 국가 개관

##### (1) 일반개요

##### 1) 지역 개관<sup>4</sup>



〈그림 III-1〉 투르크메니스탄 지도



〈그림 III-2〉 투르크메니스탄 국기

국가 정식 명칭은 투르크메니스탄 공화국이며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총 면적은 한반도의 2.4배(남한의 5배)로 488,100km<sup>2</sup>이며 국토의 80% 이상이 사막으로 이루어져있다. 서쪽으로는 카스피 해, 북쪽으로는 카자흐스탄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과 접경해있다. 기후는 뚜렷한 아열대성 건조기후로 습도가 낮고 강수량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날씨는 봄은 습윤하고 여름과 가을은 고온건조하며 겨울도 따뜻한 편이다.

##### 2) 국기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기는 1992년 2월 19일<sup>5</sup> 채택되었고 1997년 대통령의 명에 따라서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 가지를 추가하였으며 그 후 2001년 초에 수직 띠를 조금 넓게 하고 별들의 자리, 초승달의 크리, 도안 장식을 일부 수정하였다. 붉은 색 수직 띠는 예로부터 전래 되어온 카페트 무늬들로 투르크메니스탄의 문화와 전통을 상징하고 초승달은 이슬람 국가, 다

<sup>4</sup> 중앙아시아 연구소 「은둔의 나라 투르크멘」 (베델 기획: 2007) 23p에서 인용.

<sup>5</sup> 2월 19일은 나야조프 대통령의 생일로 1995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섯 개의 별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다섯 개의 주<sup>6</sup>를 의미한다.

### 3) 인구 및 분포

투르크메니스탄의 공식 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약 6,786,400명이고 아할 주에 위치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쉬하바드 시에는 총 인구 중 870,000명이 거주한다.<sup>7</sup> 그러나 <표 I-1>에서 볼 수 있듯이 CIA에서 발표한 인구와 투르크멘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에는 백만 명이 넘는 오차가 존재한다. 민족구성은 투르크메니스탄인 85%, 우즈베키스탄인 5%, 러시아인 4%, 기타 6%<sup>8</sup>이다.

<표 III-1> 인구 통계<sup>9</sup>

(단위 : 만명)

연도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7
CIA	408.1	422.9	436.6	455.1	468.9	468.9	477.6	486.3	495.2	504.3
투르크멘 통계청	-	-	-	-	-	-	-	-	658.8	678.6

### 4) 요약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자흐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및 카스피 해에 접경해 있는 중앙 아시아의 국가로서 선교학적으로도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기후는 뚜렷한 아열대성 건조기후로 습도가 낮고 강수량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기에 나타난 카페트 무늬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문화와 전통을 상징하고, 초승달은 이슬람 국가임을 상징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공식 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약 6,786,400명이고 국민들 중 85%가 투르크멘인이다.

## (2) 정치

### 1) 개요

투르크메니스탄은 1995년 개최된 유엔 총회로부터 영세중립국으로 승인된 국가이다. 1991년 독립 이후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2006년 12월 사망하기까지 독재 정치를 강행하였다. 니야조프의 사망 이후 2007년 2월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구르반굴리

<sup>6</sup> 발칸 주, 다쇼구즈 주, 아할 주, 레밥 주, 마리 주를 의미한다.

<sup>7</sup> 중앙아시아 연구소 「은둔의 나라 투르크멘」 (베델 기획: 2007) 39p에서 인용.

<sup>8</sup> 아르메니아인, 카자흐인, 타타르인, 우크라이나인 등 70여개의 소수민족이 6%를 차지한다. 그 중 고려인은 약1,000명(아쉬하바드 200명)으로 추산된다.

<sup>9</sup> Op.cit, p259



베르디무하메도프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 2) 정치 구조<sup>10</sup>

투르크메니스탄은 헌법상 입법·사법·행정부와 인민평의회에 의한 권력 분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다. 대통령은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서 내각을 지도하고 최고재판소장 등 주요 인사 임명·해임, 사면권 등의 폭넓은 권한을 보유한다. 의회는 단원제이고 법률 채택 및 국가예산안 승인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부 견제 기능은 극히 미약하고 현 집권당인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전 공산당)이 유일한 합법적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 3)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 정부



〈그림 III-3〉 니야조프 금신상

니야조프 전 대통령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장관을 교체하였고, 교육기간을 줄이면서 우민화 정책을 폈다. 스스로를 투르크멘인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투르크멘 바쉬’라고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또한 1999년 12월, 헌법을 개정하여 스스로 종신대통령이 되었고 북한의 김일성을 모델로 하여 자신을 ‘하늘이 내려주신 예언자’로 칭송하는 등, 스스로를 우상화 하는 정책에 온 힘을 쏟았다.

한편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루흐나마 1,2권이 발간되었는데 이 책을 읽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 국민에게 읽도록 하였다. 참고로 운전면허 시험에서조차 루흐나마의 내용이 출제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곳곳에서 니야조프의 사진과 동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2006년 12월 사망하면서 그의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사후 북한의 김일성과 같이 투르크멘의 아버지로서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그의 막대한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다.

〈표 III-2〉니야조프 전 대통령이 실시한 사회통제 사례<sup>11</sup>

조차내용	명분
오페라, 발레공연 금지	비(非)투르크메니스탄 문화라는 사유
짧은 남성의 장발, 턱수염 금지	턱수염과 구레나룻을 기르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sup>10</sup> Ibid, 154p

<sup>11</sup> Ibid, 278p

	발호를 막기 위한 조치
투르크멘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에 대해 \$50,000 부과	투르크멘인과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하면 세금 면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가입비'로 여겨졌으나 국제사회의 비판에 따라 2005년 폐지
공공의료 직원 1만 5,000명 해고	간호사, 산파 등이 주요 대상
아쉬가바드 외곽의 병원 폐쇄	아프면 수도로 오면 된다는 명분
비디오 게임 금지	너무 공격적이라는 이유

#### 4)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



〈그림 III-4〉 베르디무하메도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니야조프 전 대통령의 주치의를 맡았던 것을 계기로 정계에 진출하였고 1997년에 보건부장관으로, 2001년에는 부총리로 임명되면서 급속도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나갔다. 그는 니야조프가 사망한 이후 2007년 2월 14일 투르크메니스탄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니야조프가 축소시켰던 교육기간을 정상화시켰다.

또한 사회복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대통령의 개방적인 정책을 환영하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니야조프 전 대통령의 잔재가 남아있고 주치의였다는 출신의 한계로 눈에 띄는 획기적인 변화를 취하지는 못하고 있다.

#### 5) 요약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2006년 12월까지 장기 집권한 니야조프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정책과 우민화 정책을 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투르크멘인의 아버지라 개명하며 다양한 사회통제를 통해 절대 권력을 행사했다. 니야조프가 사망한 이후 2007년 2월 새로 선출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아직 획기적인 변화를 취하지 못하고 있지만 교육기간을 늘리고 사회복지에 관심을 보이는 등 개혁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개방적 방향 전환은 앞으로 선교 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경제<sup>12</sup>

#### 1) 개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구 소련의 영향으로 사회주의식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1993년부터 전기, 가스, 수도를 무상 공급하는 등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가스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제 불안이 심화되었지만 1998년이래 다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생산성 증대와 외국인 투자 확대에 주력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에 힘 썼다. 석유 및 천연 가스 자원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보유량이 세계 3위인 자원 강국이지만 그에 따른 수입 중 대부분을 정부 측 관료들이 소유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화폐 단위는 마나트(manta)이며, 2007년 7월 현재, 은행 환율은 \$1에 5,000 마나트, 시장 환율은 \$1에 25,000 마나트이다.

#### 2) 발전수준

1990년대 초반의 GDP는 매우 낮다. 그 이유는 첫째, 독립 이후 가스 수출이 급감하였고 둘째,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었으며 셋째, 정부에 의한 시장 가격체계의 왜곡 현상 때문이다. 참고로 1997년 GDP 규모는 1989년의 60%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1998년부터 에너지 수출 증가에 힘입어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로 매년 10-20%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며 고도의 경제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표 III-3〉 산업구조 변화 추이 (GDP 대비 %) <sup>13</sup>

구분	1995년	1999년	2004년	2005년
농업	17.2	26	19.9	20.9
공업	62.6	43	40.8	38
서비스업	20.2	31	39.3	41.1

#### 3) 주요산업

##### ① 농업

독립 이후 농업 자유화 및 토지 사적 소유를 허용했으나 형식적 측면에 그쳤고 소련의 제도가 그대로 답습되어 국가가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농업 부문은 생산

<sup>12</sup> Ibid, 경제 분야 참고.

<sup>13</sup> Ibid, 269p에서 발췌.

증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호전되고 있다. 주요 농업지대인 발칸 주는 곡물 생산량이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며 남부의 테젠(Tejen)과 북부의 다쉬오구즈를 중심으로 면화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Ⅲ-4〉 농업 부문 생산 추이<sup>14</sup>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곡물	생산(만톤)	150	230	253	284	250	350
	경작면적(만ha)	77.5	85	76	76	76	91
면화	생산(만톤)	114	48.9	71.4	73.1	72	-
	경작면적(만ha)	77	64	64	65	65	-

자료 : EIU(2006.3)

## ②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

투르크멘바쉬에 정유공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 이후 정유산업 시설이 낙후하여 침체가 가속화되었다. 이에 정유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현대적 시설 건설을 추진하여 2003년 완료했다. 현재는 추가로 윤활유 공장을 건설 중이다. 한편 석유와 가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폴리프로필렌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 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표 Ⅲ-5〉 석유·가스 생산 실태<sup>15</sup>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1-6월)
원유(백만톤)	7.4	7.2	8.0	9.0	10.0	10.0	9.52	4.2
정유(백만톤)	4.6	5.0	4.7	5.7	6.8	6.8	6.9	3.3
가스(억m <sup>3</sup> )	229	473	513	535	591	586	630	337

자료 : EIU(2006.7)

## ③ 건설

외국 차관과 외환 보유기금을 활용하여 수도 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sup>14</sup> Ibid

<sup>15</sup> Ibid

있다. 특히 건설 부문은 터키와 우크라이나 등 외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프랑스는 대통령 궁과 스포츠센터 등 아쉬가바드 시의 국가 주요 시설을 건설했고 터키는 공장 등의 생산시설 건설과 훼손된 유적지를 재건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회사들은 아무다리야강 대교, 비료공장, 가스 압축 공장 등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 4) 요약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보유량이 세계 3위인 자원 강국이지만 그 수입의 대부분을 정부 측 관료들이 소유한다. 독립 이후 농업 자유화 및 토지 사적 소유를 허용했으나 형식에 불과하다. 농업 생산량은 정부 지원에 의해 증대되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 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고 있으며 정유산업의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며 낙후된 시설을 현대 시설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비스 부문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지만 많은 관광 자원이 있고 건설 부문은 외국 기업 참여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GDP 규모는 1991년 초반 하락세였다가 1998년부터 에너지 수출이 증가하면서 매년 10-20%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은 국제지역학적으로나 선교학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 타 산업에 비해 낙후된 서비스업에 사업가들이 진출한다면 효과적인 비즈니스 선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4) 역사<sup>16</sup>

#### 1) 고대 국가의 형성



〈그림 III-5〉 마르구쉬 문명지

지역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고대 그리스의 영향을 받는 등 동·서양 문명의 교차지역으로서 중국과 중동지역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도시로 번성하게 되었다. 또 BC 3세기 중반에는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사는 마리 주 마르구쉬(Margush)에서부터 시작된다. 마르구쉬는 하수도 시설을 비롯한 고대도시의 흔적이 남아 있어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과 함께 세계 5대 문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텝지역<sup>17</sup>에 거주하던 이란계통의 파르티아(Parthia)족이 이 지역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 후 이 지역은 고대 페르시아

<sup>16</sup> Ibid, 31~37p, 2007.7.12~2007.7.29 현지전문가 인터뷰내용과 인터넷 사이트 [www.j2soon.com.ne.kr](http://www.j2soon.com.ne.kr)를 종합하여 편집한 것임.

<sup>17</sup> 스텝기후가 펼쳐지는 지역으로, 스텝기후는 사막 기후 다음으로 건조한 기후이며 연강수량은 250~500mm이다.

수도인 아쉬가바드 지역에 파르티아 왕국<sup>18</sup>이 건설되었다. 이 후 AD 224년 페르시아 사산(노론)왕조가 파르티아 왕국을 멸망시키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남부지역을 점령했다.

## 2) 투르크화 시기

AD 6세기 이후 아랍민족의 진출이 계속되면서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이 이슬람화되기 시작하였고 7~8세기경 몽고 고원에 위치한 돌궐족(고대 터키족)이 서진함에 따라 투르크화가 진행되었다. 751년 당나라가 탈라스 전투<sup>19</sup>에서 패하면서 중앙아시아 전체가 이슬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9세기 말 이후부터 투르크멘이라는 명칭이 나타나게 되었다. 10-11세기에 셀주크(Seljuk) 투르크 제국이 시작되었다. 셀주크 투르크가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페르시아계 토착민들이 투르크화 되었다.

## 3) 몽골의 침입과 종족의 분열

12세기에는 셀주크 투르크 제국이 멸망하고 터키, 시리아, 투르크멘으로 분리되었다. 1370년 정기스칸의 후예인 몽골의 티무르가 투르크메니스탄을 정복하여 티무르(Timur) 제국을 건설하고 1405년 티무르 사망후 제국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붕괴하게 된다. 이 당시 몽골의 침입은 투르크멘 종족을 여러 부족으로 분열시켰다. 몽골군이 철수한 후 하바와 부하라(Bukhara, 현재 우즈베키스탄 지역)를 건설한 이슬람 세력이 다시 투르크메니스탄을 지배하게 된다. 15~17세기에 투르크메니스탄은 다시 종족별-지역별로 분리되어 남부 부족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북부지역은 하바와 부하라에 복속되게 된다.

## 4) 러시아의 진출

18세기 제정 러시아의 표트르(Pyotr) 1세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친선관계를 맺게 되었다. 19세기에 투르크멘 부족들은 페르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했고 러시아가 이를 수락하며 무기와 식량을 제공했다. 이후 러시아는 1863년부터 남하하기 시작하여 1885년 투르크메니스탄 전역을 지배하게 된다. 이후 러시아 군은 1918년 4월 투르크멘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24년 10월 투르크멘 소비에트

<sup>18</sup> BC 3세기부터 AD223년까지 성황했던 파르티아 왕조는 다리우스 왕 때만 해도 페르시아제국의 한 지방 행정 단위의 속국이었으나 BC 223년 경에 파르티아를 침략하여 속국으로 만든 파르니족이 동부 이란어를 토착적 파르티아어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들이 아르사케스 왕조를 만들어 이란에 나머지 지역을 모두 점령하고 바그다드 근처인 크테시폰에 수도를 만들었다. BC 40년 경 파르티아는 근동의 로마 속국들을 침략하여 시리아를 정복했는데 이 때 파르티아는 유대인들에게는 해방자로 환영을 받기도 했다.

<sup>19</sup> 중국에서 그간의 종이기술을 집대성해서 응용한 사람은 서기 105년 중국의 채륜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서구의 제지술의 도입은 751년 아바스 군대의 이븐 살리히 장군과 당나라 군대의 고선지(高仙芝는 고구려 출신의 당나라 장수였다) 장군과의 탈라스 전투 결과이다. 고선지는 병사를 이끌고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인 석국(石國)을 점령한다. 고선지의 위세에 눌린 석국의 왕은 주변 이슬람 제국에 구원을 요청한다. 이때 벌어진 고선지와 이슬람의 전투가 바로 탈라스 전투다. 그러나 중국이 이슬람에 패함으로써 포로로 잡힌 중국의 제지기술자에 의해 종이기술이 이슬람 세계로 전파되었다.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소련 연방에 복속되었다.

## 5) 소연방 시대

### ① 소비에트화와 스탈린의 억압

공산주의자들은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설립 직후 군대 및 지방정부에 공산주의자를 투입하여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초기 소비에트의 억압정책은 투르크멘족의 반감을 야기했고 민족적 자각 및 반러 운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스탈린은 1930년대에 걸쳐 수많은 투르크멘 지식인들을 강제수용소에 감금하는 등 투르크멘인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 그렇지만 투르크메니스탄 공화국은 모스크바와 멀리 떨어진 지리적 특성으로 다른 민족보다는 부족 특성을 잘 보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② 2차 대전 이후

소련은 2차 세계 대전의 패배로 러시아 서부 및 우크라이나의 공장과 농장 및 도시의 대부분을 잃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투르크멘 이주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공장들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공장 노동자의 대거 이주와 새로운 관개 시스템의 도입으로 목화와 함께 과일, 야채가 재배되기 시작했으며 1970년도부터는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은 소연방에서 가장 고립된 곳으로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조차 타지방 방문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였다.<sup>20</sup>

## 6) 독립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 8월 연방 보수 공산주의자들의 쿠데타가 실패한 후 1991년 10월 27일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들의 국기와 화폐, 헌법 등을 채택하였고 대통령으로는 당시 공산당 서기장인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를 선출하였다. 그리고 2007년 초, 베르디무하메도프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 7) 요약

투르크메니스탄의 마르구쉬 지역은 세계 5대 고대 문명지역으로 추정되며 파르티아 제국이 주류를 형성했다. 6세기에는 이슬람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가 패하면서 본격적인 이슬람화가 이루어졌다. 11세기경에는 셀주크 투르크 제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였으며 그 후 19세기 중반에 러시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스코벨로프

<sup>20</sup> 1985년 고르바초프의 개방, 개혁 물결이 확산되었으나 투르크멘 공산당 서기인 아나무라드를 위시한 투르크메니스탄 공화국 지도자들은 개혁 조치들을 반대하며 보수적 태도를 견지했다.

장군에 의해 19세기 말 러시아가 투르크메니스탄의 전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투르크멘인은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면서 1924년 소연방의 정식 멤버가 되었고 1991년 구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하게 되었다.

## (5) 교육<sup>21</sup>

### 1) 개요

투르크메니스탄 교육은 남녀 차별 없이 10년 초·중등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동을 위한 교육기관이 있는데 3세부터 입학할 수 있으며 교육비 중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대학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 국립대학, 교육대학, 의과대학, 농과대학 등이 있고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입학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약 77%정도의 초·중등교육기관에서 투르크멘어로, 16%는 러시아어로 교육하고 있으며 소수 민족들을 위해 우즈베크어, 카작어로도 가르친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제1공용어로 투르크멘어를, 제2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며 이 두 가지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교육은 무상으로 주어지며 고등교육을 받게 되면 국가로부터 일정량의 급여도 받는다.<sup>22</sup> 투르크메니스탄의 교사들은 경험이 많지 않은 데다가 과중한 업무, 적절한 교재의 부족, 저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 교육제도

#### ① 기본교육제도

교육에 남녀차별이나 종족차별은 없으며 동일하게 교육혜택을 받는다. 또 수도와 각 지방간의 교육격차가 적으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회화위주의 영어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영어를 할 줄 아는 학생이 많다. 일단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모든 학생은 루흐나마를 공부해야 했다. 니야조프 전 대통령의 우민화 정책으로 공교육은 낙후되었으나 교육열이 높은 일부 학부모들은 사교육기관에서 자녀들을 보내 교육시킨다.

〈표 III-6〉 투르크메니스탄의 교육기관 종류

교육기관	대상연령	비고
아슬리	만 0~3세	유아원(수업료 없음)
아슬루크	만 4~6세	유치원(수업료 없음)
니자르	만 6세	학교 가기 전 1년간 준비하는 기관. 의무적인 교육기간은 아님.

<sup>21</sup> 2007.7.12~2007.7.26 현지인 인터뷰를 바탕으로 편집한 것임.

<sup>22</sup> Glenn E. Curtis, ed, Turkmenistan: A Country Study, Washington: GPO for the Library of Congress, 1996.



초중등학교	만 7~17세	교육연한은 10년이며 교육비 면제
-------	---------	--------------------

### 3) 대학

대학입학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며 일반 대학은 5년제(의과대학은 6년제), 전문대는 3년제이다. 전국에 있는 일반 대학은 16개(수도 14개)이며, 전문대학은 90개, 고등전문학교는 37개이고 총 학생수는 37,100명 정도이다. 막둠굴리대학(Magtumguly, Turkmenistan State University)은 투르크메니스탄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입학정원은 2007년 현재 600명 정도이다.

#### ① 특징



〈그림 III-6〉 막둠굴리 대학

학생들의 성적을 복도에 게시하기도 한다. 많은 투르크메니스탄 학생들이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내의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서는 대학생들에게 \$35~80의 월급을 준다. 막둠굴리 대학 같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면 \$2,000이상의 뇌물을 주어야 하며 막둠굴리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안전한 미래가 보장되는 반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면 좋은 직업을 가지기 어렵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의 교육과정에는 석사 및 박사 과정은 없다. 대학교마다 매년 최우수성적자의 사진을 학교 복도에 걸어 놓으며 때로는 모든

### 4) 2007년 교육 정책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중등교육은 9년에서 10년으로, 대학교육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러한 교육정책의 변화로 2007년 졸업생이 한 명도 없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니야조프 전 대통령의 집권 시까지는 대학 졸업자에게 군복무 기간이 1년 6개월이었지만 2007년에 들어서는 특정 대학졸업생들에게 군대를 면제해준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모든 학생들은 루흐나마를 반드시 숙지해야 했으나 2007년 7월 이후로 루흐나마를 공부하는 대신 베르디무하메도프가 저술한 ‘위생학’을 공부해야 한다. 러시아의 대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이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터키로 유학 가는 학생도 있다 또 대통령의 개방정책으로 교환학생제도도 생겼다. 작년까지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는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따라 유학학위가 인정될 전망이다.

## 5) 요약

투르크메니스탄은 2007년 초 대통령이 바뀐 이후 타 분야와 함께 교육분야도 많이 개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공교육의 수준은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들의 교육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외국어나 예술, 체육 등에 대한 현실적인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 같은 국민들의 교육열을 채워줄 교육기관의 설립이 요구되며, 선교적 관점을 가진 교육관련 전문인 선교사의 필요가 절실하다.

## 2. 지역 개관<sup>23</sup>

### (1) 아할 주

#### 1) 일반개요

아할 주는 이란 및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하고 있는 남부지역, 코페트 다크산맥(2,919m)의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인 아쉬가바드와 산업도시인 베즈메인과 테드젠을 포함하는 최대 산업지역이다. 면적은 97,000km<sup>2</sup>이고 총 인구는 939,000명(전체인구의 14.3%)이며 인구의 66.1%가 농업에 종사한다. 주·군은 ‘애네프’ 시(구 아나우 시)이며 8,000년의 각종 역사 유물이 보존되어 있고 녹색의 들판이 펼쳐져 있는 등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투르크메니스탄 전체 가스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방적, 면화가공, 건설 등 모든 산업부문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오아시스가 있어 일찍부터 농업이 발전했으며, 특히 남부의 테젠 강 주변의 좋은 수질과 기후조건으로 인해 면화 및 포도, 축산업도 발달했다.

#### 2) 주요도시

##### ① 아쉬가바드 시



〈그림 III-7〉 아쉬가바드 야경

아랍어로 ‘사랑의 도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쉬가바드 시는 이란 국경으로부터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도시로서 면적은 470km<sup>2</sup>이고 인구는 약 870,000명이다. 코페트 다크산맥 북쪽 기슭의 고원에 위치하며 오아시스로 둘러싸여 있는 아쉬가바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로서

<sup>23</sup> 중앙아시아 연구소 「은둔의 나라 투르크멘」 (베델 기획: 2007) 145~151p에서 인용 및 현지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편 집함.

정치, 행정, 공업, 교통, 상업, 과학, 문화 등 제 분야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쉬가바드 시는 1881년 게옥데페 전쟁에서 러시아가 투르크메니스탄에게 승리한 후 러시아군 주둔지가 건설되면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1948년 10월 6일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약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도시는 철도역과 은행만 남은 채 모두 파괴되었다.

이 때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투입된 소련방의 노동자들 대부분이 아쉬가바드에 정착하게 되었다. 현재 아쉬가바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전시용 도시로서 화려한 호텔들과 수려한 정부 청사들을 중심으로 깨끗하게 단장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전체 16개의 일반 대학 중 14개와 국제공항이 아쉬가바드에 위치하여 교육과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27개의 외국 대사관이 있으며 UN,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IMF 등 15개 국제기구 대표부가 소재해 있다. 콥착은 투르크멘 바쉬<sup>24</sup>의 영의 사원이고 그의 가족들이 그 곳에 묻혀있다. ‘셰키즈 아약’이란 역사 박물관과 ‘위치 아약’이라고 불리는 중립 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대표적인 공원으로서는 어머니 공원과 아타트랏 공원(니야조프의 아버지를 기념하여 만든 공원) 및 온 아트 공원이 있다. 또 아쉬가바드에는 여러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데 이는 주로 니야조프 전 대통령이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미리 건설한 아파트들이다. 아쉬가바드에는 즈글득, 미르, 루스끼, 테케 시장이 있는데 이 곳에 가면 투르크멘 주민들의 밝고 순박한 삶의 모습을 쉽게 느낄 수 있다.

### 3) 요약

아할 주는 수도가 위치한 지역으로 다른 경제지역에 비해 철도, 고속도로, 항공로 등의 사회간접시설이 발달되어 있다. 테젠과 세라흐스, 메쉬헤드 등을 잇는 철도가 통과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연결이 용이하며 중앙아 국가들과 페르시아 반도 항구를 연결하는 창고 역할을 수행한다. 앞으로 베르디무하메도프의 개방정책에 힘 입어 한 국가의 수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적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에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 (2) 다쉬오구즈 주

### 1) 일반개요

다쉬오구즈 주는 우즈베키스탄과 접경하고 있는 중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73,430km<sup>2</sup>이고 인구는 1,370,400명(전체인구의 20.9%)이며 인구의 67%가 농업에 종사한다. 19세기에는 러시아 군사요새로 건설된 철도·항공 등 교통의 중심지였다. 주요도시로는 다쉬오구즈 시와 쾨네-우르겐즈 시가 있다.

<sup>24</sup> 투르크멘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니야조프 전 대통령이 스스로 개명한 이름이다.

## 2) 주요도시

### ① 다쉬오구즈 시

다쉬오구즈 시는 다쉬오구즈 주의 행정 중심지로서 직물과 식품산업의 중심지 중 하나이다. 중앙아시아의 주요 송유관을 이곳에 건설하는 데르알리크(Deryalyk)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가스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쉬오구즈 시는 투르크메니스탄 최대의 면화 생산지역으로 면화가공과 방직 기업 등을 소재하고 있다. 북부의 다쉬오구즈 시를 중심으로 아무다리아(AmuDar' ya)강의 풍부한 물을 이용하여 면화와 포도가 재배되고 있고 이를 이용한 식료품 공업과 섬유산업이 발전했다.

### ② 페네-우르겐츠 시<sup>25</sup>



〈그림 III-8〉 자막사르 사원

페네-우르겐츠 시는 다쉬오구즈 시의 북서쪽 150km지점에 위치하며 인구는 31,400명이다. 1017-1034년에 가즈 나빋의 통치를 받았으며 1221년 징기스칸의 침략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 후 우르겐츠로 불렸으며 1334년에는 이븐 바투타(Ibn-Batuta)가 이 곳을 방문하고 이 도시를 가장 웅대하고 번성한 투르크 도시라 칭하였다. 그러나 우르겐츠는 그로부터 약 50년 뒤 타메르칸드(Tamerland)에 의해 함락되었고 남은 시민들은 현 우즈베키스탄

도시인 사마르칸트(Samarkand)로 이주하면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다. 그 이후 도시를 재건하려는 시도가 수 차례 실패하다가 1831년 관개수로가 세워지면서 결국 재건에 성공하였고 그 제방에 의해 작은 군락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도시 모습으로 부흥할 수 있었다.

이 지역의 건축유적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2세기에 세워진 테케쉬(Tekesh)의 능묘이고 가장 높은 탑은 13~14세기에 건설된 쿠트룩 테미르 첨탑(Kutlug Temir Minaret)이다. 초기 높이 67m였던 이 첨탑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탑 중에서 가장 높은 탑이다. 그러나 13세기 몽골인들이 금으로 된 탑의 상단 부분 3m를 강탈하여 현재 남은 높이는 64m이다. 이 탑은 완공되지 못했다. 일설에 따르면 탑을 주문한 자가 타 지역에 같은 탑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탑을 완성하기 직전에 탑 제작자를 살해하려고자 했으나 결국 탑 제작자가 그 계획을

<sup>25</sup> 2007.7.12~2007.7.29 현지인 인터뷰와 현장방문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편집.

눈치 채고 탑을 완성하기 전에 도망갔고 그 결과 탑이 완공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쾌네-우르겐츠 시에는 도시를 대표하는 인물인 자막샤르(Zamahsary)<sup>26</sup>를 기념하는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투르크멘족이었고 이슬람의 최고 선지자인 마호메트의 조력자였기 때문이다. 자막샤르는 아랍언어의 알파벳을 창시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유골은 메카에 묻혀있다. 이 건물 바로 옆에 고대 성터가 하나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단지 이 성터를 지을 당시 범죄한 사람들을 성벽 안에 묻는 처벌을 행했다는 사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이 성벽 외곽 지역에 해골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당시 기근에 목숨을 잃은 이들을 추도하기 위해 남겨 둔 것이라고 한다. 또 1307년에 사망한 로마의 왕 세이드 아크멘의 무덤이 있다. 세이드 아크멘은 로마에서 학업을 마친 후 거주할 지역을 선택할 기회가 생겼을 때, 쾌네-우르겐츠 시를 선택했고 이 도시를 위해 헌신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를 기념하기 위한 무덤을 만들었다고 한다. 한편 세이드 아크멘의 무덤 옆에 있는 그의 수제자의 무덤 앞에는 자그마한 돌이 배치되어 있다. 그 돌을 손 위에 올려놓고 돌이 움직일 때 소원을 빌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

쾌네-우르겐츠에는 1172년부터 1200년까지 술탄<sup>27</sup>으로서 나라를 다스린 테케시 마어솔룸(Soltan Tekesh Mausoleum)이 살던 집 역시 소재해 있다. 그 옆에는 그의 조부였던 마몬의 도서관이 있었는데, 몽골족의 침입을 받은 이후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당시 저명했던 의사 이븐시나(Avicenna)가 연구했던 도서관이었다고 한다.

### 3) 요약

다쉬오구즈 주는 아랄의 북쪽에 있으며 과거부터 큰 비단길(Great Silk Way)의 통로로서, 역사적으로는 1000여 년 전 번영했던 호레즘 왕국의 도시들이 있던 곳이다. 또한 수많은 투르크멘 상인들이 실크로드를 따라 활약하던 곳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점 역할을 하였던 지역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과 국경 교역이 활발하기 때문에 타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국제 무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상을 가진다. 다쉬오구즈 주에서 발칸 주로 이어지는 지상교통로가 부재하기 때문에 두 주를 잇는 도로가 확충된다면 지역간 교류에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마리 주

### 1) 일반개요

마리 주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남부(아쉬가바드와의 거리 300km)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하고 있다. 면적은 87,150km<sup>2</sup>, 인구는 1,480,400명(전체인구의

<sup>26</sup> 사실 그의 본명은 Jarullah Abvilkasym Mahmyt Ibn Omar Ibn Ahmet Az-Zamahsary이지만 줄여서 자막샤르라고 불린다.

<sup>27</sup> 이슬람교의 종교적 최고 권위자인 칼리프가 수여한 정치적 지배자의 칭호를 말한다.

22.6%)으로 주요도시는 마리 시이다. 마리, 바이람알리, 이론탄, 산다카치 등의 공업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산업의 중심지이다. 수도인 아쉬가바드와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주요산업으로 전력·화학공업과 식료품·섬유산업이 발달했으며, 카라쿰 운하가 있어 농업도 발달했다. 농업부문은 파미르 고원을 따라 흐르는 무르갑강, 아무다리아강에서 마리 시까지 카라쿰 운하 수질을 이용한 면화 및 포도재배와 목축이 성행하고 있다. 마리 주에서 27km 떨어진 곳에는 고대도시 메르브(Merv)의 문화 유적이 남아 있다. 동서교역의 중심도시로서 조로아스터교, 기독교, 불교의 영향을 받은 유적이 많으며 이 유적들 중 몇은 1999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2) 주요도시

### ① 바이람알리 시<sup>28</sup>

마리 주의 수도인 마리 시의 동쪽으로 27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로서 과거 메르브(Merv)의 역사와 문화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 중 역사적인 유적 중 하나가 바로 술탄 산자르의 무덤이다. 술탄 산자르는 셀주크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그의 무덤은 건축 기술의 극치라고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무덤은 거의 훼손되었고 2004년 터키 정부에서 재건해주었다. 갈라(kala)는 요새라는 의미인데 이 지역에 과거에 5개의 큰 갈라가 건설되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7개의 갈라<sup>29</sup>로 바뀌었다. 가우르갈라(Gawir-kala)는 BC 4세기에 실루찌즈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조로아스터교, 불교, 네스토리안교 등 이슬람을 믿지 않는 많은 종교인들이 주로 거주하였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시(City of unbeliever)라고 불렀다고 한다. 에룩갈라(Erk-kala)는 아랍어로 ‘크다’는 뜻으로 BC 10세기경에 이란사람들에 의해 건설되었고 BC 3세기에 가장 부흥했다. 이 곳에는 네스토리안의 선교센터가 있었지만 다양한 종교가 함께 공존했으며 인신 제사도 행해졌다고 한다. 술탄갈라(Soltan-kala)는 AD 11-12세기에 셀주크 투르크에 의해 건설된 도시로서 그 당시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였다고 한다.



〈그림 III-9〉 그즈갈라

그즈갈라(Great & little Kiz-kala)는 6-7세기 경에 아라비아인들이 건설한 요새로서 여자들이 사는 큰 요새와 남자들이 사는 작은 요새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작은 요새의 남자들이

<sup>28</sup> 2007.7.12~2007.7.29 현지인 인터뷰와 현장방문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편집.

<sup>29</sup> 7개의 갈라는 에룩갈라, 가우르갈라, 이스칸데르갈라, 샤흐리에룩갈라, 그즈갈라, 압둘라한갈라, 바이람알리갈라로 구성되어 있다.

사과를 던져 큰 요새에 들어가면 결혼할 수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 큰 요새 앞에는 식사하는 장소가 있고 요새 벽에는 요새를 보호하기 위한 장식들과 요새 안으로 빛을 통과시키는 작은 구멍들이 있다. 13세기에 몽골 사람들이 침략했을 때 200여명의 궁녀들이 이 요새로 피신한 후 요새 밖으로 뛰어내려 죽은 역사가 기록되어 여인들의 한이 서린 장소로 알려져 있다. 그 후 200년 동안 이 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지만 15세기 사흐룩이 요새를 재건하였다. 한편 사흐룩은 7개의 갈라 중 하나인 압둘라한갈라(Abdullahan-kala)를 건설했다고도 전해진다.

### 3) 요약

마리 주는 역사의 중심지로서 실크로드의 중계기지이며 동서교역의 중심지였다. 과거에 실크로드를 따라 복음이 흘러갔었지만, 네스토리안의 선교센터가 있던 지역에 술탄 산자르 성이 세워지며 이슬람의 성지화되었다. 중앙아시아의 영적인 견고한 진으로서 특별히 중보기도가 필요한 지역이다.

## (4) 레밥 주

### 1) 일반개요

레밥 주는 우즈베키스탄과 접경하고 있는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막지역과 아무다리아강 주변의 농업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은 93,730km<sup>2</sup>, 인구는 1,334,500명(전체인구의 20.4%)으로 인구의 56.6%가 농업에 종사한다. 주요도시는 투르크멘아바드 시이며, 동부 지역에는 레페텍 사막보호구역과 코이텐다크 자연보호 구역이 소재하고 있다. 석유화학 · 피혁 · 신발 · 식료품 · 건축자재 산업 및 풍부한 아무다리아강의 수질을 이용한 축산업이 발달하였고 농업부문은 곡물 · 면화 · 포도재배가 대표적이다.

### 2) 주요도시

#### ① 투르크멘아바드 시

레밥 주의 수도이며, 아무다리아강의 왼편에 위치하고 있다. 가장 길고 주요한 거리는 니야조프(S. A. Niyazov)거리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땄다. 투르크멘아바드는 레밥 주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졌으며, 비단길과 떨어진 이란, 인도 및 동부유럽과 무역의 통로 역할을 하였다. 이곳에는 각 나라로부터 온 상인들이 모여 상거래를 하였으며, 19세기에는 우랄카작인들이 이주해왔다. 또 1877년 강 선박회사가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강 선박회사의 본부가 투르크멘아바드에 있으며 선박수리 공장, 화학 공장 등의 각종 공장들이 세워져 있다. 과거 투르크멘아바드 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문화 중심지였으며, 시인, 예술가, 문학가,

음악가들이 이 곳에서 태어나 창작활동을 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독립으로 시장경제의 첫 단계로 여러 외국의 기업체들이 들어오면서 도시가 발전하게 되었다. 종교의 자유가 공포되면서 도시에 모스크들이 세워졌다.

### 3) 요약

레밥 주는 실크로드가 통과하여 아프가니스탄, 이란, 인도, 유럽으로 연결되었던 지역이다. 또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접하고 있으며, 세 개의 철도노선이 교차하여 수도인 아쉬가바드, 부하라, 사마르칸트, 타슈켄트를 거쳐 타지키스탄의 두산베까지 이어지며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로 연결된다. 또 주요도시인 투르크멘아바드는 아무다리아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레밥 주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아시아의 생명의 강인 아무다리아강을 이용한 개발과 무역 등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 (5) 발칸 주

발칸 주는 유일하게 카스피 해에 위치한 서부지역으로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접경해 있다. 면적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장 넓은 139,000km<sup>2</sup>(전체 면적의 28.4%)이나 인구는 553,500명(전체 인구의 8.5%)에 불과하다. 발칸 주의 수도는 발칸아바드 시로서 카스피 해 철도 경유지이다. 공업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지역으로 연료-에너지 복합체 및 화학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도시 집중화 현상이 최고 수준이다. 카스피 해 해안을 따라 휴양시설이 발달해 있는 관광지이다. 주요산업으로는 석유화학산업,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업, 풍부한 카스피 해의 수산자원을 이용한 어업 및 어류 가공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현재 카스피 해 해상 광구 개발을 위한 외국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생산의 94%, 원유 생산의 12%, 전력 생산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 1) 역사 및 주요도시



발칸 주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다섯 번째 주이고, 1955년에 설립이 되었다. 발칸 주 행정의 중심도시인 투르크멘바쉬에는 현재 약 39만 명이 살고 있다. 약 1880년대부터 크라스노보드스크(Krasnovodsk)라 명명되어 1917 년까지 카스피 해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별히, 이 도시는 카스피 해와



접해 있기 때문에 석유 및 건축자재 운송의

〈그림 III-10〉 카스피 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정유소가 미국의 도움으로 세워져, 이로 인해 1950년대에 수천만 톤의 석유와 수백만 톤의 경유가 생산되었다. 투르크멘바쉬는 해양, 철도, 도로, 항공, 송유관 등 투르크메니스탄의 거대한 수송 연결점이고,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남부의 코카서스 지역 등 여러 나라와의 경제적 교류를 이루고 있다. 특별히 투르크멘바쉬로부터 수도인 아쉬가바드, 투르크멘아바드 또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로 연결되는 철도가 1880년에 건설을 시작되어 1906년에 완성되었고, 중앙아시아의 관문이자 러시아제국이 남하하여 인도까지 확장할 때 관문으로 이용되었던 도시이다.

## 2) 요약

발칸 주는 카스피 해 옆에 위치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데, 중앙아시아의 유일한 바다이자 내해(內海)인 카스피 해에는 다양한 자원들이 존재한다. 발칸 주에서 1870년대부터 석유를 채취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후 외국 회사들이 점점 진출하게 되었다. 최근 새 대통령이 개방정책을 펼침에 따라 카스피 해 해안 지대에 경제 자유 구역을 세움으로써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 투자자들에게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다른 지역 보다 접근이 용이할 것이다. 이 곳에는 전문대학 과정인 기술학교가 있어 4개월에서 10개월 동안 교통, 컴퓨터, 영어, 요리 등을 배운다. 이 대학에는 해양 연구(Sea research)과가 있는데 이것은 이 대학에서 유일하게 5년간 종합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는다. 현재는 20~30명 정도의 학생이 해양 연구과를 전공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의 여러 대학 중 이 대학만이 유일하게 해양 연구과가 있어 수도인 아쉬하바드 지역에서부터 이 대학으로 편입해 오기도 한다.

# 3. 투르크멘 종족 개관

## (1) 정체성

투르크멘 종족은 한번 만나면 친구, 두번 만나면 가족이라는 투르크멘족의 속담이 말해 주듯이 현지인들은 친절하고 손님접대가 융숭하다. 그러나 동시에 서로 원수가 되면 철저히 보복하는 유목생활적 근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 종족 내에 여러 부족들이 존재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0세기에 들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었으나 아직 부족들 사이에 부족의식이 존재하며 부족마다 카페트 문양이나 의복 스타일 등 독특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전통적 유목민족으로서 계절에 따라 목초지를 옮기는 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정치적 통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유했다. 금세기 초까지도 둥근 지붕의 텐트인 ‘유르트’에서

생활하였으나 70년간의 소비에트 지배하에서 유목민족의 생활양식이 점차 소멸하였다. 또한 농토의 대부분이 국가소유로 이전되고 농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 유목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변화되었고 도시 중심적인 생활양식도 그들의 전통과 문화의 변질을 초래하였다.

〈표 III-7〉 투르크멘종족의 부족명 및 분포<sup>30</sup>

부족 명	부족 분포
테케	투르크멘 중부, 가장 유력한 부족
엘사리	투르크멘 남동부, 아프간 북서부
요무드	투르크멘 북서부, 이란 북부
게옥쿨렌	투르크멘 남서부 산지, 이란 북부
살로르	투르크멘 동부
사릭	투르크멘 남부, 이란 북동부, 아프간 북서부
차우도르	투르크멘 북부, 러시아 남부

## (2) 언어<sup>31</sup>

투르크멘어는 터키어, 아제르바이잔어와 더불어 투르크어족의 오구즈 어군에 속하며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및 러시아의 스타브로폴 지방(카스피 해 북안)에서 일부 사용하고 이밖에 이란의 고르간 부근 및 아프가니스탄 북부(700,000 명)에서도 사용된다. 투르크멘어 표기는 다른 투르크어족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18세기부터 1929년까지 아라비아 문자가 사용되다가 1929년부터 라틴 문자로 바뀌었으며 1940년부터 키릴 문자를 기본으로 하는 정서법을 사용하였다. 1994년 라틴 문자로 회귀, 초등교육에서부터 시험적으로 실시하다가, 2001년부터 모든 정부문서, 신문 등에는 라틴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역 통상 및 대외관계에서는 대부분 투르크멘어보다는 러시아어가 좀 더 공식적 언어로 사용된다. 투르크멘어는 9개의 모음과 21개의 자음을 지니고 있으며, 명사에 남녀 성 구별 및 불규칙 동사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 (3) 생활

### 1) 주거형태

최근 아파트에 사는 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전통적 형태의 집에서 거주하는

<sup>30</sup> 중앙아시아 연구소 「은둔의 나라 투르크멘」 (베델 기획: 2007) 41p 인용.

<sup>31</sup> 최한우 「중앙아시아연구(상)」 (파네가: 2003)

투르크멘인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유목민족이었던 투르크멘족은 ‘유르트’ 라는 천막에 살았다. 가랴요이, 유르트로 불리는 전통집은 끈 하나를 풀면 접어지게끔 만들어서 이동이 편하게 만들어진 형태이다. 천막을 지탱하는 대는 412개까지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4개의 대가 있는 천막에는 5-6명의 사람이 살 수 있다. 유르트 입구를 기준으로 왼쪽은 여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있고, 오른쪽은 남성들이 코란을 보거나 책을 보며 생활하는 공간이다. 중앙에는 취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때 불을 피울 때의 그을음이 천장에 남아 천장 부분은 항상 검은 그을음이 있다. 여자 방쪽에 퇴퍄이라는 모자를 걸어놓는데 여자 방에 걸어놓는 의미는 여자가 남자 방에 와서 잠자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손님접대를 중시하는 이슬람의 전통에 따라 손님이 머무르는 공간이 따로 있는데 이 공간은 장식에 특별히 신경 쓰며 벽 쪽에는 갓난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잘라 붙여 놓음으로써 집에 자녀들이 몇 명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2) 의복



〈그림 III-11〉 투르크멘 전통의상

투르크메니스탄의 전통의상은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 화려한 편이다. 특히 여성의 복장은 매우 화려하다. 여성들은 주로 긴 원피스를 입는데 가슴 부분에 수가 놓여진 전통 문양을 붙이고 다니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들은 결혼 전과 후의 옷이 다르고, 결혼 후에도 나이에 따라 다른 색의 옷을 입는다. 현재엔 남, 여 모두 현대식의 옷을 입기 때문에 전통의상은 결혼식이나 명절 때에만 볼 수 있고 그나마도 매우 간소해졌다. 남학생들과 남자 선생님들은 타흐야(taghya)라는 이슬람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과거에는 남성들이 쓰는 모자에 여성들이 의미가 담겨있는 수를 놓아 남성들에게 연애편지 형태로 선물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투르크메니스탄 내에 거주하는 러시아 여성들은 짧은 미니스커트, 티셔츠 등 편한 옷을 주로 입는 등 전통적인 투르크멘 여인들과는 상반된 의복 형태를 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전통의상은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 화려한 편이다. 특히 여성의 복장은 매우 화려하다. 여성들은 주로 긴 원피스를 입는데 가슴 부분에 수가 놓여진 전통 문양을 붙이고 다니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들은 결혼 전과 후의 옷이 다르고, 결혼 후에도 나이에 따라 다른 색의 옷을 입는다. 현재엔 남, 여 모두 현대식의 옷을 입기 때문에 전통의상은 결혼식이나 명절 때에만 볼 수 있고 그나마도 매우 간소해졌다. 남학생들과 남자 선생님들은 타흐야(taghya)라는 이슬람

## 3) 전통음식



투르크메니스탄의 전통 음식은 터키나 중앙아시아의 음식과 유사하다. 그들은 빵과 빵을 굽는 ‘탐도르’를 신성시 하기 때문에

상한 빵조차 버리지 않으며 남은 빵은 가축에게 먹이거리로 주거나 부스러기까지 모으는 경우도 있다.

〈그림 III-12〉 뽕밥(기름밥)

〈표 III-8〉 투르크멘 전통 음식의 종류<sup>32</sup>

케밥(kebab)	가정의 저녁 식사에서 가장 자주 먹는 요리로 쇠꼬치에 덩어리 고기(주로 양고기)를 끼워서 화로에 구워 보통 야채 꼬치와 함께 제공.
뽕밥(pilov)	대표적인 가정 요리로 사프란, 계피 등의 향신료를 첨가하여 양고기, 쌀, 양파, 말린 자두 등으로 만든 볶음밥.
솜사(somsa)	빵과 함께 즐겨먹는 고기 파이로 달걀, 토마토, 양파, 우유 등으로 반죽한 후 속에 고기를 넣어 오븐에 구운 것.
첸레크(cherek)	거의 모든 식사에 빠지지 않고 먹는 빵.
부르크(buirk)	한국의 만두국과 비슷함.
만티(manti)	조금 큰 찐 만두. 한국과 다른 점은 간장과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요거트와 함께 먹는다는 점이다.
샤슬릭(shaslik)	꼬치에 돼지고기, 양고기, 소고기를 끼워 불에 구워 만든 꼬치구이.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은 돼지고기보다는 양고기와 소고기를 주로 먹음.

#### 4) 교통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교통수단은 승용차, 버스, 택시, 트란바이부스 등이 있다. 모든 차 번호판에 투르크메니스탄의 나라문양이 새겨져 있다. 기름값이 60 l 당 \$1로 굉장히 싸기 때문에 승용차를 이용하는 데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물론 버스(아우토부스)와 전차(트란바이부스)가 있기는 하지만 공급이 적어 주로 승용차를 이용한다. 수도 택시 값이 지방과 비교해서 비싼 편이고 장거리 이동 시에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수도와 지방의 도로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수도의 도로는 아스팔트로 만들어져 있으나 지방의 도면은 불규칙하다. 차선은 없는 곳이 많지만 차선 위반 벌금은 있다. 차선위반 벌금은 250,000마나트(약\$10)이고 속도위반은 500,000마나트(약\$20)이다. 현지인에게는 매우 큰 돈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편이다. 수도의 도로는 매우 넓고, 잘

<sup>32</sup> Op.cit, 49p 인용.

정리되어 있다.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의 수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주민들은 장거리 여행시 기차와 비행기를 많이 이용한다. 국내선 비행기의 경우 내국인은 \$1 외국인인 \$16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 5) 위생의료



〈그림 Ⅲ-13〉 사막과 낙타

투르크메니스탄은 고대로부터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위생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고 전통적 투르크멘족은 유목민족의 특성상 한 장소에 오래 정착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위생시설의 발달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현재도 화장실, 특히 학교, 병원 등 공공장소의 화장실은 대부분 재래식이다. 현재 아쉬가바드 시에 의약품 생산공장만을 한 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이 부족하고

의료 서비스가 매우 낙후되어 있다. 새로운 약과

연구 장비의 도입 및 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으로 향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지 병원 이외에 아쉬가바드 시에 터키정부에서 세운 터키 병원이 있다. 터키 병원은 시설은 좋으나 비용이 비싸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지인들은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투르크메니스탄에 터키가 병원을 지어준 이유 중 하나는 이슬람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터키 병원(Central Hospital)에는 대부분 현지인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 6) 환경과 물

투르크메니스탄은 국토의 80%가 사막이다. 기후는 연중 내내 고온 건조한 기후로 투르크멘족의 민족성과 생활양식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부지방은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카스피 해와 접해있고, 남서부는 산록지대, 남부는 오아시스지대, 동부는 아무다리야 강을 끼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물에 석회질이 많다. 국가 전체적으로 물이 부족하지만 정부에서 거의 무상으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물을 아끼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된다. 이 물은 가라쿰 운하를 통해 공급이 된다. 전체적으로 높은 기후 때문에 수도 곳곳에 분수가 설치되어 있다.

## 7) 대중매체

투르크멘 젊은이들 중 대다수가 연예인에 관심이 많고 그 중 일부는 연예계와

관련된 장래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중매체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에는 현재 4개의 공식채널이 있지만 이 채널들은 주로 대통령에 관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은 위성 TV를 설치한다.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정 집마다 커다란 접시모양의 위성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는 놀이 문화가 부재하므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집에서 주로 TV를 본다. 채널은 러시아에서 유입된 선정적인 드라마와 뮤직비디오가 대부분이고 정부 측에서도 이 문제를 방치 하고 있어 성인은 물론 어린이조차 음란문화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심지어 공공장소에서도 선정적인 장면이 방영되기도 한다. 국가 전체의 신문과 함께 주마다 신문이 발행 되고 국가에서 발간되는 잡지도 많다. 신문의 일 면은 대부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다.

## 8) 요약

투르크멘족의 전통의상은 화려하고 여성 복장에는 가슴에 수를 놓은 문양을 붙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현재 전통의상을 특별 행사 때에만 볼 수 있고 남녀노소 대부분 현대식 옷을 착용한다. 또 투르크멘인은 빵을 신성시하며, 과거 유목민족의 특성을 반영한 유르트라는 천막에 살았지만 지금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기름값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주 이동수단으로는 승용차를 이용하며 매년 자동차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의료 위생시설은 낙후되어 있고 물에는 석회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대중매체는 투르크멘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

## (4) 사회

### 1) 가족구조

투르크멘족의 가족구조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형태를 띤다. 따라서 가족 내 결정권은 주로 가장이 가지고 있다. 이슬람문화권 내에 있기는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 국가 법으로는 이슬람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다처제가 아닌 일부일처제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파괴되는 투르크메니스탄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실업이 만연한 사회에서 일자리가 없는 남자들은 마약을 접하기도 하고 새로운 이성을 만나 이전의 배우자와 자녀를 버리고 가정을 떠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떠나는 형태로도 나타난다. 남겨진 한쪽의 배우자는 남겨진 자녀들과 함께 다시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새 가정을 이루게 된다. 버려진 자녀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으며 바람직한 가족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장하게 된다. 이 자녀들이 결혼한 이후에 그들의 부모님들이 행했던 방식 그대로 가정을 버리고 새 사람을 만나 새 가정을 시작한다고 한다. 많게는 4,5번의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고 이로 인해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으며 한 가정 내에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 또한 많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투르크멘의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가정의 전통과 가문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가정은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고, 손님들을 잘 접대하며 살아가고 있다.

## 2) 여성

전통적으로는 가정에서 여자가 결혼하여 시댁에 들어가면 시아버지를 포함한 손위 남자가족들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금지되며 모든 의사 소통은 시댁의 여인들과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직접 말하는 것을 허락 하고자 하는 경우, 시아버지는 잔치를 열고 며느리에게 선물을 준다. 그러나 그 전까지 신부는 남자들과 함께 있을 때 ‘아마쉬’라는 스카프를 항상 입에 물고 있고 함께 대화 할 수 없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다른 이슬람국가와 다르게 얼굴을 가리는 베일 착용등과 같은 엄격한 이슬람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부부는 결혼 이후 7년이 지나야 정식 부부로 정부에 신고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아이를 갖지 못하면 법적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이혼이 성사된다. 소련의 영향을 받아 남성과 여성에게 거의 동등한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현 문화부 장관과 적십자 리더는 여성이며 소수지만 여성들이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여성 사업가가 다른 중앙아시아 나라들에 비해 많은 편이다. 여성들에 대한 특별 대우의 예로, 유년기에 어머니를 여윈 니야조프 전 대통령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표시로 매년 어머니의 날 모든 직장 여성들에게 20만마나트(약 \$8)를 지급 하기도 하였다. 한달 평균 월급이 \$30~50 정도인 것에 비교하여 볼 때 꽤 큰 금액이다. 과거의 여성들은 카페트를 짜는 기술에 의해 등급이 매겨지기도 하였으나 현재에는 그런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현대의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위하여 몸매에 신경을 많이 쓰며 이전 세대의 여성들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

## 3) 사회 문제

투르크메니스탄의 주된 사회문제는 가정파괴, 마약, 그리고 실업을 꼽을 수 있다. 이 문제들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실업문제이다.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일자리가 없어 자가용으로 택시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대다수다. 다행인 것은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많아 국내에서의 석유값이 리터당 300마나트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택시 영업이 쉽다. 그리고 택시영업에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택시기사 일을 하며 돈을 번다.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이 없어도 국가에서 거의 무료로 전기와 수도를 제공하며 교육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투르크멘인들에게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빵을 살 돈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되기 때문에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삶에 있어서 크게 불편을 느끼거나 사회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특정 일자리가 없어 여가 시간에 보다 쉽게 마약에 빠질 위험이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마약이 운반되는 통로로 이용되면서 마약 파급이 확대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니야조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민화 정책을 비롯하여 국민들의 마약사용을 방치했지만 점차 문제가 극대화되자 새 대통령인 베르디무하메도프는 마약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광범위한 연령에 걸친 실업이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마약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 4) 부족간의 관계<sup>33</sup>

투르크메니스탄 내에는 5개의 주요 부족이 존재한다. 국기에 나타난 5개의 문양이 바로 5개의 주요부족을 의미한다. 이 5개의 부족에 속하지 않는 수많은 소수부족들도 존재한다. 부족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알력이 작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다른 부족끼리는 결혼도 하지 않는 등 타 부족에 대해 철저하게 배타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화하여 다른 부족끼리의 혼인도 성사된다고 한다. 한 예로 러시아가 침공하였을 때 아쉬가바드 지역의 테케부족이 마리 지역의 테케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전세가 소련에 기운 상황을 파악한 마리지역 테케부족은 이를 거절하고 친러세력이 되었다. 그 이후 이 두 부족은 서로를 원수로 여기게 되었다고 한다. 아쉬가바드 테케부족의 언어에서는 윗사람에게 존칭을 쓰지 않고 마리의 테케부족은 존칭을 쓰는데 이런 이유로 마리 테케부족이 아쉬가바드 테케부족을 천하게 여긴다고 한다. 이것은 이 둘의 사이가 좋지 않은 또 다른 이유이다.

#### 5) 요약

투르크멘족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잦은 이혼과 실업으로 다수의 가정이 파괴된 상태이다. 가족 내 최종 결정권은 남성이 가지고 있으며 과거 여성의 지위와 달리 현재 여성들은 교육 기회의 확대로 남성과 동일한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 놓인 사회문제로는 실업, 마약을 들 수 있고 부족간에 차이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됨과 동시에 개방정책을 펴면서 국제관계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을 표방했고 여러 사회단체가 조직되어 있지만 정부의 지지세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5) 문화

#### 1) 국경일<sup>34</sup>

<sup>33</sup> 투르크메니스탄 마리 주 박물관장을 인터뷰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날짜	국경일명	의미
1.1	신년	새로운 한 해를 기념
1.12	현충일	1881년 게옥데페 전투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사망한 투르크멘인을 기념. 니아조프 대통령이 게옥데페 모스크에서 추모회를 개최
2.19	국기의 날	투르크메니스탄의 새 국기 채택(1992년)을 기념하여 1995년에 지정. 니아조프 대통령의 생일도 기념
5.8~9	회상 및 전승기념일	제2차 세계대전 시 독일 항복 및 당시 사망한 아타무라트(니아조프 대통령의 아버지)를 기념
5.18	제헌절 및 막둠굴리 기념일	투르크메니스탄 헌법 채택(1992년) 및 막둠굴리 기념일(5.19)을 통합(2000년)하여 휴무
10.6	아쉬가바드 대지진 희생자 기념일	1948년 아쉬가바드에서 발생한 대지진 희생자 추모
10.27~28	독립기념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 중 하나로 아쉬가바드에서는 대통령 참관리에 군사 퍼레이드 등이 개최
12.12	중립의 날	1995년 UN 총회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이 영구 중립국 지위를 부여 받은 날을 기념

## 2) 카페트

투르크메니스탄의 카페트는 방수와 방음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는 투르크멘의 건조한 날씨 탓에 양털이 삼중모가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통 유목민족이었을 때에는 모래 위에 바로 카페트를 깔고 생활했는데 그래서인지 방수가 잘 되도록 더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고 한다. 또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카페트 짜는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여자들의 가치가 매겨졌을 정도로 카페트는 투르크멘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집 마당마다 카페트가 깔려있고 벽이나 문, 창문에도 카페트 장식이 많다. 카페트 중에서는 전통적으로 페르시아 카페트가 가장 가치가 높았다. 이 카페트는 우즈베크에 부하라 카페트를 말하는 것인데 이 카페트의 원산지가 바로 투르크메니스탄이다.



카페트의 종류는 매우 여러 가지이다. 그 중에는 결혼식에 쓰이는 카페트도 있고 메카성지를 의미하는 특별 기도 카페트도 있다. 카페트의 다양한 문양에는 각각 고유한

의미를 갖고 있다. 부족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알라의 눈과 같은 주술적인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이쉬가바드 시에 카페트 공장이 있는데 정부가 루흐나마

〈그림 Ⅲ-14〉 기도 카페트 책자 문양으로 된 카페트 제작을 부탁하여 현재(2007년 여름) 작업 중이라고 한다. 카페트를 만드는 기술은 가정에서 습득하기 때문에 따로 카페트 제작법을 가르치는 장소는 없다. 예전에는 어머니로부터 배우며 도안 없이 카페트를 만들었지만 요즘에는 주로 도안을 참고하면서 제작한다고 한다. 제작된 지 100년이 넘는 카페트는 수출이 금지되고 오래된 카페트일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 최근에 만들어진 카페트를 국외로 가져갈 경우는 세금이 5\$이다.

### 3) 음악



〈그림 Ⅲ-15〉 정부 소속 무용단

‘담브라’는 기러기발이 없는 길다란 목의 현악기이고 이것은 결혼식이나 할례 의식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연주된다. ‘기작’은 벤조와 비슷한 모양으로 2개의 현이 달린 악기이며 2피트 정도 된다. ‘칠타르’는 40개의 현과 길고 넓은 목, 둥근 소리통이 있으며 ‘두타르’는 가장 유명한 투르크멘 전통 악기 중 하나이다.

### 4) 문학

막둠굴리(Magtymguly, 1770~1840)는 투르크멘인 문학의 아버지로 시인이자 사상가이다. 국민들은 막둠굴리의 시를 코란보다 더 숭배하는 경향을 보인다. 투르크멘 곳곳에 막둠굴리를 기념하는 막둠굴리 동상이 세워져 있다.

### 5) 결혼

투르크멘 전통 결혼식의 모습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신부를 낙타에 태워 데려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때 신부는 얼굴과 머리 전체를 보이지 않도록 덮는 큰 장신구를 착용해야 한다. 첫날 밤의 관례는 신부가 신랑이 결혼식을 할 때 착용했던 모자 델베르크(타호야 위에 쓰는 털모자)와 벨트, 신발 등을 직접 벗겨 주는 것이다. 한편, 현대의 결혼식은 서양 혼인문화와 공존하고 간소화된 경향이 있어 전통 결혼식과 많은 차이가 있다.

## 6) 장신구<sup>35</sup>

투르크멘에는 전통적으로 장신구가 매우 발달하였는데 낙타와 말에도 여러 장식들을 착용하게 하였다. 장신구 중 대부분은 악마로부터 보호를 의미하는데 특히 알라의 눈이라는 의미로 악의 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눈 모양의 그림을 넣은 장신구는 아직까지도 널리 유행되고 있다. 여성들은 장신구를 좋아하여 장신구의 총 무게가 36kg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는 아마조니언 레이디<sup>36</sup>를 따라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 여성의 장신구는 각각 그 이름이 다 있다. 머리에 쓰는 것은 ‘에그메’, 이마에 쓰는 것은 ‘썸슬레’, 가슴에 쓰는 것은 ‘블리야카’, 가슴 아래쪽에 부착하는 것은 ‘투마르크’, 팔찌는 ‘블레디크’, 가방은 ‘헤이켈’이라고 하여 이 안에 코란을 넣고 다닌다.

## 7) 금기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여러 금기사항이 있다. 투르크멘인들은 무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덤을 지날 때는 라디오 소리를 줄이고 농담을 하거나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것은 삼가며 조의를 표하기 위해 두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는 행동을 취한다. 이외에도 투르크메니스탄에는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인사를 하지 않는 관습이 있다.

## 8) 요약

투르크메니스탄에는 현충일과 독립기념일을 비롯한 다양한 기념일이 있고 대표적인 전통악기로는 두타르, 고푸스 등이 있다. 투르크멘의 카페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막둠굴리라는 위대하게 추앙받는 투르크멘 시인이 있다. 투르크멘 전통 결혼식에는 신부를 낙타에 태워오는 등 다양한 의식을 거행했으나 현대에는 간소화되었으며, 악의 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신구가 발달했다. 무덤을 중요시하는 투르크멘인은 무덤을 지날 때 조의를 표한다.

## (6) 종교<sup>37</sup>

### 1) 개요

투르크멘 지역에는 BC 3세기 파르티아 시대 때 조로아스터교가 전래되었고 AD 2세기와 4세기에 불교와 네스토리안교가 차례로 유입되었다. 6-7세기부터 아랍인들로부터 이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후 1000년 이상 이슬람교에 묶여 왔다. 구 소련 시절

<sup>35</sup> 투르크멘 마리 소재 박물관 관찰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편집.

<sup>36</sup> 아마조네스의 여전사. 이 제국에는 여자들만 살고 있고, 남자를 사냥해 와서 아이를 낳는다.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활을 쏘게 하 게 위해 가슴을 절단하고 남자가 태어나면 사살한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할 때에도 이 지역은 피해서 지나갔다고 전해진다.

<sup>37</sup> 2007.7.12~2007.12.29 현지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작성.

마르크스-레닌 주의의 유물론적 세계관 영향 아래 모든 종교가 부정되었고 이슬람 사원이 폐쇄되고 많은 종교지도자들이 숙청당했다. 그러나 독립 이후 정부는 이슬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 2) 종교현황

투르크멘 정부에서 이슬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슬람에서 찾게 되었다. 터키와 이란을 위시한 여러 이슬람 국가들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이슬람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원, 학교, 문화원 등을 세워주면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터키에서는 투르크멘의 우수한 학생들을 터키로 유학 시키며 그들에게 이슬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이슬람에 대한 종교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슬람 부흥은 투르크멘 사람들에게는 신앙이라기 보다 민족적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투르크멘의 이슬람은 수니파에 속하지만 샤머니즘의 요소가 많이 강하고 신비주의 성향의 수피즘, 민속이슬람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들은 이슬람 성자의 무덤에 가서 자신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부적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임신을 갈망하며 이슬람성자들의 무덤 옆에서 구르는 의식을 하기도 한다.

## 3) 종교특징

대부분의 투르크멘인은 하나피파(Hanafite sect)의 수니(Sunni)계열<sup>38</sup> 무슬림들이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토착 종교의 영향으로 샤머니즘적 요소가 가미되어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 투르크멘인들은 자신들이 태어나면서 무슬림으로 생각하지만 이슬람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들을 잘 알지 못하며 알라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지 않고 이슬람 성전인 미켓에도 잘 가지 않는다. 투르크멘 여자들은 무슬림 여인에게 강요하는 ‘차도르’를 쓰지 않는데 이유는 이들에게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슬람의 율법보다 투르크멘인으로서의 민족적 전통이 더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구 소비에트 공화국의 종교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멘인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민속 이슬람을 통한 종교활동을 지속했다. 투르크멘의 이슬람은 투르크멘의 샤머니즘적 요소가 이슬람교에 가미된 독특한 형태의 종교로 독립 이후 크게 성장하였다. 민속 이슬람적 특징 중 하나인 악의 눈을 믿는 것은 투르크멘인들의 생활화된 관습이다. 악의 눈의 저주를 막기 위해서는 알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페트와 여러 장신구 문양에 알라의 눈 문양을 새기거나 코란 구절을 적은 부적을 휴대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투르크메니스탄에는

<sup>38</sup> 수니 무슬림들은 신앙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는 시아 무슬림보다 훨씬 보수적이다.

이슬람 세력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주술적이고, 민족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어 투르크멘족 특유의 이슬람 형태를 만들었다.

#### 4) 정치와 종교의 연관성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크다. 이에 투르크메니스탄도 표면적으로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려 하지만, 실상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니야조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독보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을 투르크멘 바쉬(투르크멘의 영적 아버지)로 칭하고 자신을 신격화 시켰다. 곳곳에 그의 사진을 걸어놓고 자신의 저서인 루흐나마를 전 국민에게 읽게 하였다. 수도의 정 중앙에는 자신의 신상을 세워 마치 자신이 투르크메니스탄 전역을 보호하는 것처럼 나타냈다. 보통 권력 있는 정치 지도자이더라도 함부로 종교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은 드문데 투르크메니스탄의 니야조프 전대통령은 종교의 자유화를 인정하면서도 이슬람과 기독교를 매우 박해하고, 선교사들이 주민들을 교화시키려 하거나 계몽시키려 하면 가차없이 스파이 혐의로 추방시킨다. 특히 정부는 이슬람교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공영 방송에서 예수 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는 등 여러 종교의 프로그램을 적절히 방영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니야조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이슬람 번영을 억압하기 위한 정책을 펴 투르크메니스탄 내에 근본주의적 회교도들이 많지 않도록 하였으나 동시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심하여 선교사들이 장기적으로 거주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 5) 기독교 현황

1991년 독립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이 국가의 체제를 갖추면서 바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1997년에는 신자가 최소한 500명 이상 되어야 교회등록을 할 수 있다는 종교법이 통과되었고 이슬람과 러시아정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모임은 불법화되기에 이르렀으며 2001년에는 성경판매를 금지하는 금지령을 내렸다. 정부는 정책상 지난 2004년 3월 12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종교 자유법을 발표했으나 단지 표면적 변화였을 뿐 기독교 집회가 열리는 장소에 경찰들이 들이 닥치는 일이 빈번했으며 예배 장소를 폭력적으로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투르크메니스탄에 개신교회는 없으나 소규모로 모임을 이루어 옮겨 다니며 예배를 드리는 모임은 소수 존재한다. 2007년 7월 현재 한국인 선교사는 한 가정 밖에 없다.

#### 6) 요약

투르크메니스탄은 751년 탈라스전 이후로 이슬람화 된 이슬람 국가이다. 소비에트

시절 잠시 이슬람 세력이 주춤 했으나 독립 이후 이슬람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다시 국민들 대부분이 그들 스스로를 무슬림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야조프 전대통령의 종교 억압정책으로 인해 이슬람교를 비롯해 모든 종교가 정치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투르크멘의 이슬람은 기원전부터 전래되어오던 민속적 전통 종교와 혼합된 민속 이슬람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근본적 회교도의 수는 소수이다. 현재 터키를 비롯, 타 이슬람국가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이슬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기독교계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내 개신교회는 없으며 소규모의 예배 모임들은 지속되고 있다.

## IV. 선교 전략

### 1. 선교 현황

#### (1) 선교 역사

##### 1) 고대 투르크멘의 기독교 역사<sup>39</sup>

AD 2세기경 마리 지역에 불교가 전파되었으며 4세기에는 조로아스터교를 숭배하는 사람이 많았다. 네스토리안교의 이단논쟁으로 인해 이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 사마르칸트를 거쳐 현재의 투르크메나바드 지역으로 이동해 왔으며 마리 지역에 선교 센터를 설립했다. 이와 같이 과거 투르크메나바드 지역에는 전에 기독교를 신봉하던 자들이 많았던 영적 영향력에 힘입어 현재도 복음 흡수율이 다른 주에 비해 높다고 한다.

751년 아랍 연합군과 중국과의 탈라스 전투에서 아랍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약 1,000년간 이슬람이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지역을 지배했고 19세기, 소비에트연합이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면서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마르크스의 슬로건 아래 이슬람사원을 폐쇄했으며 이때, 테케부족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 소련의 스코벨로프 장군이 투르크메니스탄을 점령하고 약 15,000명을 학살하면서 십자가를 내세웠기 때문에 투르크멘인은 러시아정교회와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기독교인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 2) 독립 이후 선교 역사

###### ① 탐색기 (1991~1995년)

1991년 투르크메니스탄의 독립 이후 최초로 러시아 침례교와 오순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서양인 선교사가 입국했다. 또 피플(People), 남침례교회, 웨(WEC)선교회를 중심으로 단기 사역 및 비 거주 사역이 시작되었으나 이 시기에는 UN을 제외한 모든 NGO활동이 불가능했다.

###### ② 베이스 형성기 (1995~1999년)

이 시기에는 ATA, IVF가 주도적으로 사역했으며, ATA는 수질개선사업을, IVF는 다쉬오구즈지역에 거의 무상으로 컴퓨터 사역을 하였다. 43명의 외국인 사역자중 80%는

<sup>39</sup> 2007.7.12~2007.7.29 현지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편집.

ATA와 IVF를 통해, 20%는 외국인 학교 교사와 대학교 사전 편찬 명목으로 비자를 받았다. 그러나 1997년 종교법개정으로 500명 이상의 교회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래서 그 이후 대다수의 기독교 종교단체는 문을 닫았고 정부는 ATA와 IVF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 ③ 핼박기 (1999~2003)

1999년 ATA와 IVF를 위시한 서양인 사역사 43명이 추방당하게 되었고 2000년 초에는 사역자가 2명 남았으며 9.11사태 이후 투르크메니스탄 내에는 사역자가 전무하였다.

## 3) 투르크메니스탄의 한국인 선교사 역사

### ① 초기(~2003)

1995년, A사역자가 한국인 최초의 장기 사역자로 투르크메니스탄에 입국하였고 2년 뒤 순교하였다. 그 다음 투르크메니스탄 단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연히 B사역자의 장례식을 목격한 C사역자가 투르크메니스탄에 헌신하게 되었으며 1999년 입국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사역을 시작했다. 2001년 태권도 사역자인 D 사역자 가정이 입국하여 2004년까지 활동했으며 2002년에는 E사역자 가정, F사역자 가정 그리고 2003년 G사역자 가정이 입국하였다.

### ② 부흥기(2003~2006) 및 핼박기(2006~현재)

2003년 알파사역을 도입하여 1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 이후 설립한 회사가 처음으로 수입을 올리기 시작하였고, 성도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2004년에 H사역자 가정과 I사역자 가정 추가로 입국했으며, 2005년 성탄절에는 약 200명이 모여 연합예배를 드리는 등 활발한 선교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2006년 스파이 혐의로 한국 선교사들이 대대적으로 추방되었고(2년간 7가정 추방) 현재 J선교사 가정과 외국인 선교사 가정만 남아있으며, 몇몇 사역자는 비자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 (2) 최근 현황

2007년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는 공식적인 개신교 교회는 없으며 지하교회만 몇 개 존재한다. 다쉬오구즈 주에 B교회, 레밥 주에 Y교회가 소재해있고 그 외에도 자바르 교회, 영생교회, 웨이지 교회가 있지만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은 터키의 강력한 이슬람 포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지 교회의 리더들이 바로 서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기독교는 상당한 박해를 받고 있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기이다. 지하교회의



성장을 위해 올바른 리더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지고 더불어 현지에 더 많은 사역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

## 2. 선교 방해 요소

### (1) 강력한 통제체제

투르크메니스탄 니야조프 전 대통령은 강력한 독재정치로 유명하다. 그는 종신토록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국민들이 계몽되는 것을 철저히 반대하며 우민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국가 외부의 NGO단체나 선교사들에 의해 주민들이 영향을 받고 교란되는 것을 염려하여 현재 UN 산하의 국제 기구 외에는 모든 NGO단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선교사들이 주민들에게 접촉하는데 큰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포교활동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은 현지인의 집에서 숙박 할 수도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수도인 아쉬가바드 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여행을 다닐 경우에는 반드시 가이드와 동행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을 안내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외국인을 감시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 가이드는 외국 관광객이 하는 행동들을 일일이 정부에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이드가 있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거나 주민들을 선동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통제체제는 복음 전파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 (2) 견고한 진

투르크메니스탄은 고대로부터 많은 침략과 전쟁을 겪어 오며 역사적으로 수 많은 피를 흘린 땅이다. 곳곳에 무자비한 전쟁과 전쟁의 역사가 있어 무덤을 숭배하는 문화가 발달하였다. 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쓴 뿌리로 자리잡아 투르크멘인들을 누르고 있다. 마리지역은 4세기 네스토리안교의 선교센터였으나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신 셀주크 제국의 건설과 몽골의 침략 과정 가운데 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이 도시를 ‘한이 서려있는 도시’로 만들었다. 퀘네우르겐츠 지역 역시 ‘죽음과 두려움의 도시’로 알려져 있고, 수도 아쉬가바드 시는 도시 전체가 커다란 신전으로 만들어져 대통령을 숭배하는 듯 한 모습을 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이 한이 서려있는 역사는 매우 오래되고 깊기 때문에 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견고한 진이 되어 투르크메니스탄 주민들을 영적으로 힘들게 하며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들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3) 장기적 거주 어려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사역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외국인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NGO단체를 거부해서 비즈니스 비자가 아니면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없다. 비자를 3개월, 6개월 단위로 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선교사들은 사업 실적을 내는 동시에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역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더욱이 비즈니스 비자를 받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다. 2006년에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 장기로 사역하는 대부분의 사역자가 간첩 혐의를 받고 강제출국 당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주민들은 외국인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지만,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두고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 3. 선교 가능성

### (1) 복음의 접촉점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개방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선거 유세 기간에 인터넷 보급률을 확장시키고 학생들의 해외유학을 허용하였으며 개악된 교육제도를 새롭게 개편하는 등 사회경제적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학생들의 해외유학 부분이다. 해외 유학 통해 투르크멘 학생들이 기독교인을 만나 복음을 접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복음을 받아들인 학생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주변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모임을 만들어 투르크메니스탄 복음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현지 학생의 해외유학과 동시에 외국인 교환학생제도를 확대함으로써 현지 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이 공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기독교인 외국인 학생이 투르크멘 대학생과 함께 공부하고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에게서는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체류를 원하는 자에게만 장기비자를 허락하는데 \$10,000정도의 초기 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현지인 직원을 채용하고 회사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용이한 비즈니스 선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2) 성공사례

#### 1) 비즈니스 선교

현재 장기 선교사로 투르크메니스탄에 거주하는 사역자들은 비즈니스 비자로 입국하였다. 한 선교사는 무역, 통상, 여행업무 등을 관장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이는 선교사들의 비자 문제도 해결하면서 현지인의 실업을 해결해주고 실재적인 필요들을 충족시켜 주어 일석 이조의 효과를 나타낸다.

## 2) 교환학생제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만난 미국인 학생 선교사를 통해 한 투르크멘 대학생이 교환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남자친구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베르디무하메도프는 최근 교환학생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결의를 발표하였는데 이 제도를 통해 투르크멘인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수월해질 것이다.

# 4. 선교 전략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총체적 선교 사업이 요구된다. 한가지 분야의 요구를 충족시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함께 접근해야 해결되는 문제가 많다. 또한 장기와 단기 사역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래는 투르크메니스탄 선교를 위하여 사업별로, 그리고 역할별로 나누어 설명해 놓은 전략들이다. 그러나 이는 분리된 사역들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연합을 이룬 창의적 접근이 요구되는 사역들이다.

## (1) 사업별

### 1) 비즈니스

외국인이 투르크메니스탄 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는 비즈니스 비자뿐이다. 또 비즈니스 선교는 투르크메니스탄의 현실성을 고려한 선교 전략 중 하나로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이다.

#### ① 유통 및 소매업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여러 가지 필요가 많다. 하지만 투르크멘인들은 국가의 오랜 고립정책으로 외부와의 접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도 없다. 심지어 쥐뿔이나 파리채, 모자 등과 같이 한국에서는 흔한 물건조차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을 유통시키거나 판매한다면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 ② 건설업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에는 터키와 우크라이나, 프랑스 등 여러 국가들이 건설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특히 터키는 이윤창출 차원을 넘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이슬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과 같이 아쉬가바드 시의 아파트 설립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여러 지방의 호텔 및 숙박 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참여한다면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③ 여행사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은 무조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이드와 동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가이드들은 물론 투르크메니스탄의 관광을 돕는 책임도 맡고 있지만 동시에 기독교의 선교활동을 비롯한 여러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고용한 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정신을 바탕으로 한 여행사를 세워 투르크메니스탄으로 가는 단기 선교사들에게 기독교인 가이드를 제공한다면 포교활동을 하는 데에 더 수월할 것이다.

# 2) 학교운영

## ① 아버지학교

한 가정에서 아버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독교인은 주로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시고 어떤 존재이신지를 구체적으로 하는 데에 도움을 받는다. 근래에 들어 투르크멘족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가정의 소중함을 망각하는 가장에게 있는데, 그들은 자주 감정대로 가족원들을 대하며 심지어 불륜을 저지르기도 한다. 부모의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부정적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이러한 연고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올바른 아버지상이 훼손되었다. 또한 니야조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투르크멘바쉬’로 명명 하면서 투르크멘의 아버지로 자처했다. 이는 아버지상을 매우 왜곡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버지학교의 모토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이다. 투르크메니스탄에는 건강한 아버지상이 재정립 되어야 한다. 아버지가 회복 됨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 될 수 있다.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은 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시작 할 수 있을 것이다.<sup>40)</sup> 아버지상이 회복 됨으로써 알라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 가버나움 왕의 신하는 아들이 아프자 예수님이 이웃

<sup>40)</sup> 두란노 아버지학교 <http://www.father.or.kr/>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예수님께 달려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깨어진 아버지상이 회복되는 것이 급선무다.

## ② 마약퇴치학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마약 문제이다. 한 젊은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나라에 마약문제가 심각하지 않냐는 질문에 그 젊은이는 마약문제는 세계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냐며 대답을 회피 하였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의 마약문제는 심각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중앙아시아로 퍼지는 마약이 투르크메니스탄을 통과하기 때문에 투르크멘 사람들은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들은 마약에 대한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심각성이나 마약에 중독 시 극복방법이 있는지조차 알지 모른다. 특히 이는 실업문제와 맞물려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이 자연스레 마약을 찾게 되는 현상으로 연결되어 결국 가정의 파괴까지 불러일으킨다. 마약으로 인해 깨어진 가정이 2 가구 당 1 가구라는 통계도 발표 되었다. 마약퇴치학교에 대한 정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sup>41</sup>에서 얻을 수 있다. 현재는 외국인이 들어가서 학교를 세우거나 주민들을 교화시키는 일이 금지되고 있으나 마약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고 현 대통령도 마약배포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마약퇴치와 관련 사업들을 시도한다면 정부에서도 허가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

## ③ 영어캠프

투르크메니스탄은 제 1 공용어로 투르크멘어를, 제 2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수도 아쉬가바드 시에서 만난 청년 중 학교 정규 교육을 받은 이들은 대부분 간단한 생활 회화 정도는 영어로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도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크다. 유니세프(UNICEF)는 1992년에 투르크메니스탄에 학교 교육을 실현하면서 대량의 영어 자료를 보내주었고, 이후 NGO단체들이 들어오면서 영어 센터를 열고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센터의 소수 미국인들만 남아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현재 투르크멘에서는 영어 교육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영어는 투르크메니스탄을 개방시키는 것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방시키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개방이 되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지만 그 중간 과정으로서 개방은 필수적이다. 현재 단기선교로 가서 영어캠프를 열고 주민들을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지만 장기 선교사가 터전을 마련해 놓은 바탕에서 단기팀이

<sup>41</sup>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 <http://www.drugfree.or.kr/>

캠프를 여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 3) 유학생 비자

#### ① 교환학생

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해외 교환학생을 허용하고 있다. 앞서 선교 가능성 부문에서 언급한 대로 교환학생 기간을 통해 기독교를 믿는 외국인 학생이 현지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주변 현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나온 투르크멘 유학생은 복음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개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투르크멘 교환학생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 직접 주변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 ② 한동대학교 UNITWIN

2007년 유네스코 주관으로 제3세계 학생들에게 선진교육의 혜택을 주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한동대학교가 선정되었다. 이로써 한동대학교는 제 3세계 학생들에게 학문적 영역과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투르크메니스탄 학생들을 초청하여 UNITWIN에서 더 나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한동 대학교 학생들이 이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복음을 받아들인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양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영성 훈련을 시키고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돌아가서 주변 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울 수 있다.

### 4) 문화교류

국제관계의 여러 형태를 불문하고 정치적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수교가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중앙아시아문화교류협회는 문화관광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기관으로서 중앙아시아 5개국과 국제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협회이다. 다양한 분야의 과제들을 민간외교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이들 국가들에 대하여 새로운 창조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단체의 설립목적이 직접적 선교는 아니지만 충분히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관계개선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중앙아시아에 대하여 외교적 가치를 인식하면서도 특별한 정책을 세우고 접근하지 않고 있어 서로 교류가 거의 없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 한국의 외교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사역을 위한 한국인의 입지를 넓히려면 먼저 한국이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요한 외교 상대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면 한·중앙아시아문화교류협회는 현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나 지난 2006년 7월 말에는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문화 사절단을 초청하여 일주일간 교류를 가졌다. 이 협회의 활동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주민들의 호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는 국가 대 국가의 교류라는 점이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 어떤 형태의 사역이나 사업을 하든지 먼저 친밀감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정부의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서로 동역자가 되는 것은 효과적인 선교의 전략이 된다.

## 5) 키르키즈스탄 내 학생 양육 및 관리

키르키즈스탄의 수도 비쉬케크의 한 대학에서는 미국인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모여 기도모임을 가지고 있다. 그 대학에는 200여명의 투르크메니스탄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기도모임을 갖는 학생들이 투르크메니스탄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꾸준히 양육한다면 실제로 투르크메니스탄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키르키즈스탄에서 양육 받은 학생들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직접 사역을 하거나 현지의 선교사를 돕는 보조적인 일을 한다면, 현지 사역자의 일에 실질적인 부족을 보완할 수 있을뿐더러 투르크메니스탄 현지인을 직접 사역자로 키우는데 적합할 것이다.

## (2) 역할별

### 1) 단기선교사

#### ① 복음전파

투르크메니스탄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사역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의 종교가 자유인 것과는 달리 일정 종교의 포교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또 외국인이 포교활동을 하다가 적발됐을 때는 추방 후 다시 입국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역하는 장기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단기 선교사가 단기간에 복음을 전파한다면 장기 선교사의 부담을 덜 수 있고 또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현지인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현지 언어로 전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단기 사역자는 현지에 나가기 전에 복음 전파에 대한 언어를 익힌 후 현지로 나가는 것이 좋다.

#### ② 리서치

과거 외부 문화를 거의 차단하다시피 한 전 대통령과 달리 조금씩 외부 문물의

유입을 허용하고 있는 새 대통령의 정책으로 앞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필요들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구들이 선교적인 통로로 사용되기 이전에 먼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데 리서치 활동을 통해 최근 자료를 필요로 하는 선교사와 중보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 ③ 스쿨운영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외국인이 스쿨의 형태로 모임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현 투르크메니스탄의 각종 필요들을 분석해 볼 때 스쿨의 형태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선교 전략 중 하나로 도출되고 있어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의 개방 정책이 확산되고, 비자 문제가 해결될 경우 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이외에 학원에서 음악, 미술 등 자신의 재능을 살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넓은 반면,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이러한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에서는 더욱이 이러한 기회들이 전무한 상태이며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여름 성경학교 등의 스쿨을 통해 투르크멘 학생들의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는데 일조하고, 더불어 복음을 전파하고 양육한다면 긍정적인 선교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장기선교사

### ① 센터운영

투르크메니스탄은 외국인 활동에 대한 통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단기 선교팀이 들어 갔을 경우 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 선교사는 단기팀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에게는 관광 비자와 비즈니스 비자밖에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형태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센터를 통해 위에 제시한 학교운영 사업들을(아버지학교, 마약퇴치학교, 영어캠프)할 수 있다. 단기팀이 준비해 온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단기 팀이 가고 난 이후 사후 관리가 필요한 주민들을 양육하는 일을 맡을 수 있다.

### ② 비즈니스

현재 외국인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비자는 비즈니스 비자뿐이어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최근 비즈니스 선교가 각광받고 있다. 이는 현지인에게 육적 필요와 영적 필요를 동시에 채워주기에 선교의 좋은 도구가 되고 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실업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전망있는 사업으로 회사를 열고 현지인을 고용하며 현지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여러모로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비즈니스로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은 종종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비즈니스 선교가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국가적 현실을 반영한 선교전략이라 생각한다.

### ③ 가정교회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현지 리더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투르크메니스탄처럼 외국인이 장기 체류 할 수 없는 경우는 현지 리더 양육의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 이들이 당장은 큰 교회를 형성해서 예배 할 수 없을지라도 소규모 모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며 그루터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리더로 세워진 자들을 더욱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양육하고 싶다면 한국이나 미국 등지로 유학을 보내어 양육 할 수 있다. 지금도 가정교회들이 산발적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지하교회 형태로 예배하고 있지만 그 수가 극히 적고 불안정한 형태를 띠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우도 가정교회들이 불씨가 되어 중국 선교를 맡고 있는 것처럼 투르크메니스탄에도 가정교회를 세우고 현지인 사역자를 양육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 3) 중보기도팀

### ① 역사지역의 견고한 진

마리 주는 세계선교역사에 있어서 과거 선교센터가 있던 의미있는 지역이다. 실크로드를 따라 복음이 전파되던 중 이슬람세력에 의해 그 흐름이 막혀 중앙아시아에서 뚫어야 할 영적으로 견고한 진으로 여겨진다. 11세기 셀주크 제국이 건설되면서 기독교 세력이 약화되고 이슬람교가 강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마리아는 또한 고대·중세시대 요새들이 많은데 그 중 그즈갈라리는 곳은 몽골이 침입했을 때 궁녀들이 이 건물로 몰려와 3층 높이에서 200여명 정도가 몽골군을 피해 떨어져 자살한 곳으로 한이 서려 있는 곳이다.

다쉬오구즈 주에 있는 콰네우르겐츠 시에는 10-11세기경에 만들어진 성터가 남아 있는데 이곳에는 범죄자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반역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권력자의 명령에 의해 성이 지어질 당시 산채로 매장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성벽에는 많은 유골이 발견된다. 이 두 지역을 향한 지속적인 중보기도를 통해 사단이 구축한 영적 견고한 진을 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② 독재

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투르크메니스탄 민주공화국으로 자처하고 있지만 실상은

독재국가이다. 니야조프는 대통령이 되고 난 후 헌법을 개정하고 반대세력을 무력으로 숙청하는 등 정권을 독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물론 정권이 교체되기는 했지만 새 정부 역시 기존의 정치체제를 답습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독재가 끝나고 국민들이 더 이상 정권에 억압받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 ③ 이슬람

니야조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자신을 우상화하기 위해 다른 종교활동을 억압하고 자신이 작성한 루흐나마를 신성한 책으로 규정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이슬람교는 정통 이슬람교라기 보다는 토속신앙이 결부된 기복적 이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슬람 법도를 잘 지키지 않으며 오히려 이슬람 성지들의 무덤을 숭배하고 조상들의 무덤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인다. 비록 이슬람의 영향력이 약해 보이긴 하지만 투르크멘족은 민속 이슬람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또 터키에서 이슬람 선교를 위해 병원을 짓고 이슬람 유적지를 복구해주는 등 투르크멘의 이슬람화를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접근해오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영을 대적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게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 ④ 현지 사역자

현재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셔서 비즈니스와 사역 두 가지 일을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고 더 많은 영혼들 붙여주셔서 투르크메니스탄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역이 넓어지도록 기도가 필요하다. 더 많은 장기 사역자들과 단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희귀한 이 척박한 땅에 생명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투르크메니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다섯 개 주 그리고 투르크멘 종족에 대해 알아보았다. 투르크멘 민족은 고대 유목민족으로 여러 장소에 유랑하며 살았지만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하면서 한 곳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다. 8세기 중반 탈라스 전투로 인해 이슬람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토속 종교와 혼합된 형태의 민족적 이슬람의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니야조프 전 대통령이 1991년 독립 이후 독재 정치를 일삼다가 2006년 12월 심장마비로 사망한 후 2007년 2월 베르디무하메도프 새 대통령이 선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루흐나마를 공부하는 수업시간에 자신이 저술한 위생학을 공부하도록 하며 니야조프 전 대통령의 영향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정치계에 독재 정치를 극복한 새로운 형태를 시험할지 아니면 전과 같이 일인 독재 정치 체제를 고수할지 미지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 정부가 문호를 개방하며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포교활동을 불법화하며 기독교를 억압하지만 외교의 문이 열리면서 선교의 문도 함께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2007년 7월에는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양국 고위 관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문화교류를 통해 관계를 쌓았다. 그리고 기존의 비즈니스 비자를 포함한 유학생 비자 등 새로운 형태의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 정부의 태도와 상이하게 투르크메니스탄의 현지인들은 복음에 대해 관대하고 기독교를 접했을 시 거부감이 적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본 리서치 보고서가 제안한 다양한 선교전략을 투르크메니스탄의 현실에 적절히 적용시킨다면 투르크메니스탄을 복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복음화될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땅에 흐르는 순교의 피, 지속되는 중보 기도자들의 중보와 선포를 통해 결국 투르크메니스탄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으신 계획에 동참하여 투르크메니스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자. 기뻐하라, 투르크메니스탄.

## 〈참고문헌〉

중앙아시아 연구소(2007), *은둔의 나라 투르크멘, 베델 기획*  
최한우(2003), *중앙아시아연구(상), 펴내기*

Glenn E. Curtis, ed. Turkmenistan: A Country Study. Washington: GPO for the Library of Congress, 1996.

빛으로 나아오라 투르크메니스탄아 [www.j2soon.com,ne.kr](http://www.j2soon.com/ne.kr)

두란노 아버지학교 [www.father.or.kr](http://www.father.or.kr)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 [www.drugfree.or.kr](http://www.drugfree.or.kr)